

# 한강공원 내 텐트로 인한 갈등관리 연구

유예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공원은 개인적 휴식의 장소이면서도 사회적 만남의 장소로 기능한다. 그러나 국내 도시공원에서는 사회적 활동이 일어나기 보다 텐트를 설치하여 사적 영역을 만들어 즐기고자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텐트 설치행태는 일행과 친밀한 친목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문화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텐트라는 사적 설치물이 공간을 점유하게 되면서 공공공간은 개인이 점유한 영역 외 잔여 공간으로 남겨졌으며, 다른 이용자들이 공간·사회적으로 소외시킬 수 있는 위기에 처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공원이라는 공공공간에서 사적 영역을 만들어 점유하고자 하는 행태와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공원 내 텐트 설치'를 둘러싼 쟁점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용 주체 사이에 발생한 갈등의 양상을 발견하고, 그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공간적 현황분석을 동반한 관찰조사와 Q 방법론을 활용한 인식조사를 시행하였다. 연구의 대상 범위는 도시공원 내 텐트 설치가 처음 시작되었으며, 해당 행태가 가장 많이 관찰되는 한강시민공원이다. 한강공원 전체 지구를 대상으로 텐트 설치행태의 전반적 이해와 공원의 이용 및 운영주체의 인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공원이용객의 장소 선택 패턴을 분석하기 위한 관찰조사는 여의도지구의 여의나루역 부근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행태지도 작성을 수반한 관찰조사를 통해 그늘과 한강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다수의 이용자가 선호하게 되면서 일반 공원이용자와 텐트이용자 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공원의 혼잡도가 높아지면서 일반 공원 이용자들이 텐트에 밀려 그늘이 없는 경사지나 조형물 하부로 내몰리는 과정에서 심리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공원의 혼잡도가 낮은 오전에는 시민들이 여유롭게 공원을 이용한다. 그러나 점심시간부터 나무 아래와 대형그늘막 주변에 대한 집중선점이 시작되고, 본격적으로 공원에 머무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따라서 좁거나 경사가 있지만 그늘이 있는 구역을 선택한다거나, 조형물 하부를 점유하는 현상이 관찰된다. 공원이용객이 급속히 증가하는 오후 4시 이후부터는 그늘이 풍부한 도시 방면보다는 그늘이 없지만 탁 트인 공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강변의 소규모 경사 녹지는 상층부는 평지이고, 하층부는 급격히 경사도가 낮아지는 구역으로, 경사가 있어 전면이 다른 텐트로 가려지지 않기 때문에 강을 조망하기 좋은 텐트 설치 장소로 인기가 높다. 돛자리 이용자들은 텐트이용자가

점유하고 나서 남은 경사가 심한 구역을 주로 이용한다. 일몰 후 저녁때가 되면 외부에서 사람의 유무를 확인할 수 없을 만큼 어두워진다. 넓은 녹지에는 조명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돛자리 이용자들은 가로등으로 비교적 밝은 수변공간으로 집중되기 시작하며, 대교 하부공간을 이용하기도 한다. 텐트이용자들 역시 일몰 후에는 녹지공간 한가운데보다는 가로 조명이 설치된 길 주변에 몰리게 된다. 그늘과 한강 조망이 장소 선택과 무관해진 일몰 후에도 이용객들이 점유하고자 하는 장소가 일치하면서 텐트가 다른 이용자들을 소외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Q 방법론을 활용한 인식조사의 결과를 정리해 보면 유형에 상관없이 응답자들은 공통으로 공원에서의 텐트 설치에 대한 법규 내용을 알지 못하며, 제도의 유무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 일행과 좀 더 친밀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텐트를 선호하는 시민들도 존재하지만, 공원 내 텐트 수요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다른 누군가의 공원 이용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에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있고, 적절히 규제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또한, 이를 문제로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서 관리 혹은 규제의 필요성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다. 공원에서의 텐트 설치 활동을 둘러싼 주체들의 인식 유형은 3가지로 도출되었다.

먼저 제1유형은 텐트에 대해 수용적으로 생각하고 관리 측면에서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다. 이들은 텐트 문화에 대한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지만, 텐트 이용에 대한 규제는 단속보다는 자발적 시민의식의 실천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제2유형과 제3유형은 제1유형보다 텐트 문화가 일으키는 부작용에 대해 깊이 체감하고 있어 규제와 관리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텐트를 반대하는 입장의 제2유형은 텐트의 이용이 공간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강경한 생각을 하며, 공원 내 텐트에 대해 찬성하는 제3유형은 공간의 분리와 같은 적극적 방안에는 회의적 반응을 보인다. 모든 유형은 피크닉을 즐기는 데 있어서 텐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제3유형은 텐트 안에서의 새로운 경험에서 자유로움을 느끼고 즐거워하며, 때에 따라 텐트가 필요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모든 유형이 공원을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텐트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최근 공원에 텐트가 많아진 원인이 텐

트 대여와 설치의 간편성 때문이라는 진술문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볼 때, 텐트 설치의 시작은 이용자가 특정 목적성보다는 남들이 하는 모습이 부러워서, 빌리기 쉽고 설치하기 쉬워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원은 개인적 휴식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적절한 거리감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구경하고, 나의 모습과 행동이 타인에게 보여지는 사회적인 만남의 장이다. 우리나라 도시공원에서 나타나는 텐트 문화는 전통적 공공공간의 의미와는 다른 양상이지만, 다수의 시민이 즐거워하는 새로운 문화이다. 시대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그 시대의 문화가 담긴 공원 역시 변화하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공원 이용문화의 등장은 이를 적절히 수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텐트문화를 연구한 결과, 시민들이 텐트 설치행태의 문제를 체감하고 있었으며, 텐트가 반드시 필요해서 혹은 개인적 공간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공원운영의 측면에서는 공원 내 텐트문화를 존중하되 적절히 수요를 줄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쓰레기 발생, 녹지 훼손, 치안상 문제 등 가지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점뿐만 아니라, 다른 이용자들을 공간·사회적으로 소외시켜 공원의 공공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특정 다수의 이용객이 방문하는 공원에서 이와 같은 갈등이 생겨나는 것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발생한 갈등의 양상을 발견하고 특성을 이해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갈등을 구성하는 다양한 유형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갈등의 인과관계를

분석한다면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와 같이 공간적 현황분석과 동반한 관찰조사와 이해관계자의 인식조사를 통한 정성·정량적 방법이 뒷받침된다면 행정 절차 혹은 입안 시 설득력을 얻을 수 있어 도시공원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공원 내 갈등을 관리하고, 적절한 허용 및 규제 방안을 수립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1. 김미영(2017) 현대 공공공간의 새로운 가능성 고찰. 한국지리학회지 6(3): 455-463.
2. 김순은(2007) Q 방법론과 사회과학. 도서출판 금정.
3. 서문기(2004) 한국의 사회갈등 구조 연구: 갈등해결 시스템을 모색하며. 한국사회학, 38(6): 195-218.
4. 양병이(1984) 레크리에이션장소의 분석을 위한 환경심리학적 접근방법: 피크닉을 중심으로. 한국관광학회 관광학연구 8: 56-72.
5. 이재혁(2016) 지역산업 클러스터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미시적 이해당사자의 갈등구조 분석: 영동 와인클러스터를 대상으로. 국토계획 51(5): 27-143.
6. 임승빈(2007) 환경심리와 인간행태. 보문당.
7. 전미리(2011) 한강시민공원 여가참여자 간 여가갈등인식 연구: 산책자와 자전거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 조경진(2007) 공원문화의 현실과 지평: 서구와 한국의 공원이용 변천과 비교를 중심으로. 환경논총 45: 33-54.
9. 진상현(2009) 알기쉬운 국토연구방법론. 국토연구원.
10. Saitō Jun'ichi 『公共性』, 윤대석 외 2인(역)(2009) 민주적 공공성: 하버마스과 아렌트를 넘어서. 이음.